



대외개방과 적자누적 관리의 초석

그야말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보험지식마저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고견과 해안이 적지 않은 위험관리 분야에 감히 언급할 용기를 가졌다는 것은 우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남의 일에 참견(?)키 좋아하는 속성의 직업을 가진 처지임을 백번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진지한 관심 한번 제대로 뒤보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무지를 글로써 다시한번 드러내게 된 것이야말로 더욱 우매한 일로 빈축을 살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소귀에 경읽기」식으로 심심찮게 들어왔던 많은 탁견들을 기억나는대로 재구성, 목청을 높여본다면 그 정도의 치기는 어느정도 용서를 하시리라 믿고 자기합리화에 나서왔다.

자동차보험의 수지악화로 지



양 승 득
(한국경제신문 기자)

난 수년간 적자경영을 면치 못해 온 손보업계에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고조돼 왔다는 것은 재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일로 알고 있다.

최근 수년간 11개 원수사 및 대한재보험과 관련단체, 학계를 중심으로 기법향상을 위한 꾸준

한 연구작업이 진행돼 왔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노력의 댓가가 당장은 손에 잡힐 수 없는 위험관리업무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문외한으로서는 자연 우를 범치 않기 위해서도 화보험회를 중심으로 한 견해제시에 그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을 숨길 수 없다.

현대산업사회에서 각 기업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risk)에 대해, 기업경영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마이너스적 영향을 최적의 코스트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경영관리의 한 기능이 위험관리라고 알고 있다.

또 이같은 위험관리분야가 역사적으로 인식케 된 것은 1916년 프랑스의 경영학자 Henri Fayol 에 의해서였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미국에서 최초로 학문

적 입장에서 이 분야를 취급·분석한 것은 Robert I·Mehr와 Bob A.Hedges의 「Risk Management in Business Management」가 발간된 지난 60년대 초부터의 일이라고 전해진다.

그만큼 학문으로서의 역사도 결코 길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국내 손보업계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도 아주 오래전의 일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 지난 73년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화보협회의 그간의 활동은 일천한 국내위험관리역사와 비교해 볼때 보험물건에 대한 위험관리 활동에 적잖은 활기를 불어넣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국내 원수사를 대신해 각종 보험풀을 운영, 일종의 신디케이트역할을 해온 화보협회가 전적으로 방재·위험관리업무의 독보적 중심기구였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84년에 금융풀이 이미 해체된데 이어 미국의 보험사들까지 공동배분을 받게돼 해체요구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특수건물풀만을 운영중인 화보협회로서는 더 이상 신디케이트의 역할을 고집할 수 없을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과거 각종 점검활동 및 사고예방활동에서 쌓은 경험을 최대한 활용, 진일보한 방재센터 내지 위험관리기술풀로 성장하고자 하는 화보협회의 희망찬 계획은 거의 절대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손보업계 위험관리활동의 주 대상이 되는 보험물건은 우선 대다수가 화재를 비롯한 산업재해

의 위험을 안고 있다.

때문에 위험관리활동의 효과 측정이 손쉬운 화재보험을 우선적 대상으로 살펴본다면 국내손보업계의 화재보험손해율은 지난 80년부터 최근의 86회계연도에 이르기까지 평균 30%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부보물건들의 각종 방재 시설개량과 자재개선, 건축기법의 현대화등에 힘입은 바도 크겠으나 사실상 화보협회를 비롯한 손보업계의 위험관리활동 강화에 따른 무형의 예방효과 또한 실로 엄청났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이같은 예방효과가 각 손보사차원의 소극적 노력에서 얻어졌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할 때 손보업계가 전체 업계차원에서 전개해 나가야할 위험관리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

대외개방시대를 맞아 피할 수 없게된 국제경쟁, 갈수록 고도화·대형화하는 각종 위험, 자산운용수익률의 저하등등 손보업계의 정상적 운영을 위협하는 외부적 압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위험관리업무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국내 손보업계로서는 지난해 4월부터 본격업무에 들어간 화보협회의 방재시험소를 중심으로 기술풀을 서둘러 강화하는 것도 위험관리업무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 3년의 세월과 50억원에 가까운 보험자산을 투입한 방재시험소야말로 그누구 혼자의 것도

아닌 손보업계 공동의 자산이요, 위험관리업무의 과학화 시대를 앞당긴 촉매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화보협회로서는 손보업계 위험관리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기 전에 업계로부터의 체질변화요구가 전혀 없진 않았는가 하는 점을 상기해볼직 하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 위험관리업무의 선구자가 돼왔던 화보협회로서는 그동안 축적된 자료 및 기술공개요청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왔었는가를 말이다.

아울러 화재위험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기술서비스를 엔지니어링과 자동차 등에 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 연구 및 개발활동등을 가속화해야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가 등을.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 손보업계의 위험관리기법향상 노력이 펼쳐져 갈지는 몰라도 결국은 업계와 화보협회등 모두가 최소한 한가지 공통된 열매는 거둘 수 있으리라고 국외자로서도 쉽게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즉, 손보업계의 위험관리강화 노력이야말로 대외 개방과 적자누적이란 내우외환의 위기를 관리해줄 초석이 될 열매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총괄) 및 화재보험 손해율 추이 (단위: %)

연도별	손해보험	화재보험
1980	87.7	32.5
1981	70.2	34.0
1982	71.0	17.4
1983	94.3	48.5
1984	76.7	33.8
1985	77.8	42.0
1986	74.8	22.5

(자료: 손해보험요율산정회)